

# 전주 도서관 여행 참가자 93% '만족'

### 183명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건의사항 반영해 하반기 신규 코스 개발 예정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성인 183명을 대상으로 여행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전주지역 5개 특성화도서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여행자의 취향대로 선택해 여행할 수 있게 주제별 코스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총 3회(하루 코스 1회·반일 코스 2회)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운영을 시작한 전주 도서관 여행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말까지 33회에 걸쳐 총 28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여행자의 대부분은 가족(54.5%)·친구(25.3%)와 함께 도서관 여행에 참여했으며, 주제별 코스 구성에 대한 만족 응답은 98%로 집계됐다.

또한 도서관 여행을 안내하는 해설

사의 해설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98.7%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여행 체험비가 적절하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86.4%가 만족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별 도서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여행 코스 중 평화동 확산속시집도서관이 가장 높은 만족

도를 나타냈다.

전주 도서관 여행 참가자별로는 전체 참가자 284명 중 86.6%인 246명이 전주 시민이었으며, 타 지역 여행객은 38명(13.4%)이었다. 타 지역 참가자 비율은 2월 5%, 3월 8%, 4월 20%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최근 개관한 야호 책놀

이터인 금암·인후도서관과 향후 개관 예정인 연화정도서관 등을 추가하는 등 도서관 여행 코스를 다양화할라는 의견도 냈다.

시는 이번 의견을 토대로 여행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반기 도서관 여행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도서관 여행자는 "도서관마다 특색있는 이야기를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도서관의 공간들을 알게 되면서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할 거 같다"면서 "도서관 여행을 즐기면서 전주 부심, 꽃심 부심, 전주도서관 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가해 주시고, 여행 만족도에 높은 점수를 주신 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면서 "책과 여행이 일상이 되는 전주,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 전주를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전북대 이세종 열사비를 참배하며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 앞서 전주를 방문한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민주당 도당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결의를 다졌다.

## '5.18 큰 뜻 더 좋은 민주주의로 계승 발전'

###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이재명 위원장과 이세종 열사 참배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전북대 이세종 열사비를 참배하며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우 후보는 17일, 전주를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등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이세종 열사비를 찾아 올해로 42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 후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킨 5.18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5월정신을 계승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

시켜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민주당 도당 대회의실에서 갖은 간담회에서 이번 6.1지방선거 출마자를 격려하고 "모두가 민주 정신을 되살려 워터게이트 때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는 민중항쟁 전북 기념식과 이 열사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전북대는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부터 1억2천여만 원을 들여 추모비가 있는 민주공장을 새로 단장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먹는 물 수질검사 능력 '전국 최고'

### 시 맑은물사업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검사 평가서 만점 획득... 최상위 검사기관 선정

전주시의 먹는 물 수질검사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의 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시험은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 결

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항목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적합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

시는 지난 2월 23일 18개 미지의 시료를 바탕으로 6명의 연구진이 각각의 항목을 분석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결과 18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을 획득,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시는 2021년 국제숙련도 평가

에 이어 이번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 시험에서도 100점 만점을 연이어 달성하며 수질검사 분석체계와 분석 장비, 분석자 능력 모두 국내 최상위기관임을 입증했다.

시는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도물의 안전성 검증·확보를 위한 전주시 수질관리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평가에 앞서 첨단 분석기기 50여 종에 대한 정도관

리/정도검증(QA/QC)을 자체 실시하고 분석 장비의 정밀도와 정확도, 민감도를 보정하는 등 기기 안정화 작업에 주력했으며, 반복적인 예비·추정·확정 실험을 진행했다.

장병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전주시는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한다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돗물 안전확인과 공동주택 수질검사 인증제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민 마음 회복 위한 '마음안심버스' 달린다

### 취약계층 대상 주 1회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로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저소득층 시민 등 전주 시민의 마음을 회복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시가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버스다.

마음안심버스는 지난 두 달여 간의 운행기간 동안 전주지역 취약지구와 모악산·아중저수지 등 인구 밀집지역, 대학교 주변 등을 찾아가 △정신건강증진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심리지원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기를 이용해 대상자들에게 스트레스 측정 및 결과

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높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찾아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이동상담을 할 예정이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마음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지친 마음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지원 등 정신건강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자영업자 보호 위한 3대 공약 발표

###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17일 정책 발표를 통해 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공약,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자영업자 사회적안전망 강화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련 강화를 위해 시 후보는 △골목형 상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소규모의 지역 내 입점 제한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절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임주민 내몰림에 대한 관리·통제 △대형 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 지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사회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일정 소득 이하 노년유상금제 소액가임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3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조촌동·전미동 일원 하수도 정비 추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올 연말까지 국비 89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투입해 덕진구 조촌동·전미동 일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이 추진 중인 3개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조촌동 2개 지구 11개 마을(교산, 동계, 굴산, 오신1,2길, 신성, 곡천 및 덕동, 신기, 당마, 새가웃동)과 전미동 1개 지구 3개 마을(전당, 은평, 진조리)이다.

시는 이들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17.2km구간을

시설하고, 529기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오수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세관급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우·오수 분리사업)에 포함해 정비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재난지원금 방문신청 31일까지 연장

전주시는 전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시 재난지원금'의 방문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해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에 상관없이 완산구청 또는 덕진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시는 방문신청 기간을 이달 16일까지로 정했으나, 보다 많은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신청 장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등을 고려해 당초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완산구청 민원실과 덕진구청 1층 로비로 변경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이며, 전주지역 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평생학습관, '청소년 마음 치유 인문학'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펠로우 작년도서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마음 치유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마음 치유 인문학은 지난 13일 개강한 미술 인문학을 비롯해 그림책 인문학과 영화 인문학 등 총 3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미술 인문학에는 전주지역 청소년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

기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거장 피카소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 인문학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이 인문학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청소년 인문학은 청소년들이 마음이 치유되고 자아를 탐색해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문학을 통해 꿈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다시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